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과 보일러설비가족여러분



▲ 박기준 회장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존경**하는 회원 및 보일러설비 가족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대망의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보람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그동안, 계속되는 불경기와 침체된 영업환경 속에서, 많은 고통을 감내해 오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협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는 역사적인 대통령선거와 사상최악의 기름 유출사고를 비롯하여 각종대형 사건이 빈발 했던 한 해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가 의욕과 희망을 갖기보다는, 체념과 실망이 더 컸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시공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고자 하수 도법을 비롯하여,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건의안을 꾸준히 제출해왔습니다.

이중 건축법 중 온돌의 설치기준 건의안과 우리협회가 시공업자의 실태조사권한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우리협회의 두 가지 역점사업을 이룬 뜻 깊은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난방시공업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온돌의 설치기준제정에 따른 설비규칙개정건의안은, 새해의 중요현안으로 추진하게되었습니다

우리협회는 새해에도 미비한 제도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당면현안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냉난방기술교육과 수련회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축적케 하여 보일러시공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외경쟁력향상에도 힘을 기우릴 뿐 아니라 산업자원부로부터 위임받은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법정교육도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협회가 관련법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관련협회와 때로는 갈등과 반목이 없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실효성이 적은 법 개정 보다, 회원들의 이익과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허심탄회한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침체된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시공업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더욱 큰 관심과 참여로, 협회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새해는 새 정부출범과 함께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큰 만큼 각종 경제개발 계획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따라서 장기침체와 내수부진을 씻고 경기가 활력을 되찾게 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부응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추진했던 온돌의 설치기준이 제정된 만큼 이에 따른 설비규칙이 마련되는 데로 중국난방협회와의 교류를 활성화 하여 온돌종주국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난방기술의 전수와 관련기기판매를 촉진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회원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우리협회도 새롭게 도약하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지난해에 보내주신 성원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보일러설비가족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부

# “초일류국가로 비상하는 대한민국 제3막의 역사 열자!”



▲ 이 용 섭 장관 (건설교통부)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희망차고 보람된 일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불안의 확산,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테러와 암살 등으로 전 세계가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사상최대의 환경오염으로 기록될 태안 유조선 원유 유출사건, 각종 비리의혹 폭로, 사회적 신뢰수준의 추락 등 혼란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밝고 희망적인 일도 많았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대구 국제육상대회 (2011년)·인천 아시안게임(2014년)·여수 엑스포(2012년) 등 연이은 국제대회의 유치로 통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기틀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교통부는 참여정부의 중심축으로서 작년 한 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청렴하고 투명한 부처 만들기’를 역점과제로 삼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1.11 부동산 대책 등 종합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일관된 정책추진과 관련 법령의 적기 개정을 통해 집값의 확고한 안정을 이루어 냈으며, 청약가점제 도입 등으로 주택공급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 한해 24% 이상 급등했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에는 일반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3~4%대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등 2007년에 주택시장은 완전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최고조에 달해 국민들의 상실감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던 제가 취임할 당시의 상황을 회고해보면, 이는 매우 값진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본격 착공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초기에 위헌결정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민의 기대와 협조 속에서 금년 7

월에 착공한데 이어 지역주민들 마저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5개 혁신도시를 착공하였고 기업도시도 태안부터 착공에 들어감으로써 균형발전 사업들이 본격적인 개발 단계로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류부문에 있어서도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등 국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공항철도 1단계 개통 등을 통해 동북아 허브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으로 3회 연속 진출하고, 항행위원회도 재선되어 항공강국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인천공항이 2년 연속 서비스부문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투자의 효율을 높였고,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 계획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자랑스런 건설교통부 가족 여러분!

2008년 새해는 참여정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새 정부에서도 건설교통 정책이 멈춤 없이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주요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교통 행정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므로 한시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국민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많은 정책적 노력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이 다시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병은 뿌리를 뽑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확보되면 주거문화가 소유문화에서 거주문화로 확실하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잘못하면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 주기적인 투기와 집값불안이 재연되어 지난 5년간의 노력이 고통과 비용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사업 등을 토대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속화 하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확대하며, 동북아 물류허브를 위한 물류경쟁력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협력의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남북경협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설산업을 첨단 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건설산업 선진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